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이번 주 미 경제 스케줄
- FinanceYahoo: 11월 미 일자리 공고 증가... 그러나 고용 시장 냉각 조짐
- Bloomberg: 미 서비스 지표 상승... 물가 압박과 비즈니스 활동 증가
- Reuters: 미 홀리데이 매출 9% 상승... 모바일 쇼핑 붐 탕
- Bloomberg: 11월 미 무역적자 확대... 수입 크게 확대
- Bloomberg: 연준 이사 “금리 인하 신중하게 진행”

[미국 금융]

- Bloomberg: 국채 금리 상승에 주식 하락... 금리 인하 저해 지표 탕

[물류]

- Bloomberg: 올해 컨테이너 요금 급증... 관세와 파업 우려로

[인공지능]

- WSJ: 엔비디아 CEO “성장 분야는 로봇틱스와 자동차”
- CNBC: 삼성전자, 글로벌 경쟁에서 AI 활용
- Bloomberg: AI 에너지 수요가 기후 기술 투자 주도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전기차 ‘배터리 벨트’ 타운 “트럼프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
- Bloomberg: 유나이티드 항공, 스타링크 Wifi 서비스 제공 예정
- FinanceYahoo: 우버와 엔비디아 협력, 자율주행차 AI 강화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Jobs Report, Fed Minutes, Delta Earnings: What to Watch This Week

이번 주 미 경제 스케줄

- 수요일: 연준의 작년 12월 의사록 공개. 1월 29일에 정례 회의
- 목요일: 뉴욕증시와 나스닥 휴장 (故 지미 카터 미 대통령 추모)
- 금요일: 연방정부 12월 비농가 고용 수 발표 (15만5천개 예상)

WSJ 기사

FinanceYahoo: US job openings inch higher as hiring, quitting rates drop amid broader labor slowdown

11월 미 일자리 공고 증가... 그러나 고용 시장 냉각 조짐

- 오늘 화요일 발표 연방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미 일자리 공고는 10월 784만개에서 11월 810만개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3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일자리 공고다. 전문가 예상보다도 많았다.
- 하지만 일자리를 그만두는 숫자와 고용 숫자 모두 둔화하면서 노동시장이 냉각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11월 고용은 527만 개로 10월의 530만 개에서 하락했다. 고용률은 10월 3.4%에서 11월 3.3%로 하락한 것이다.
-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이직률 역시 10월 2.1%에서 11월 1.9%로 하락했다.

FinanceYahoo 기사

Bloomberg: US Services Index Climbs, Price Gauge Hits Highest Since 2023

미 서비스 지표 상승... 물가 압박과 비즈니스 활동 증가

- 지난 12월 미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성장이 빨랐다. 즉, 지난 2023년 초 이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비즈니스 활동이 더욱 견조해진 것이다.
- 지난달 공급관리협회(ISM)의 서비스 지수는 2포인트 상승한 54.1을 기록했다. 50 이상은 확장을 의미한다.
- 이 같은 비용 상승 지표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나왔다. 비즈니스 활동과 보다 강한 주문 상승에 따른 견조한 수요는 가뜩이나 강한 물가 우려를 키우고 있다. 18개의 서비스 산업 중 15개는 12월 지급 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Bloomberg 기사

Reuters: US online holiday sales rise nearly 9% on mobile shopping boom, report shows

미 홀리데이 매출 9% 상승... 모바일 쇼핑 붐 탕

- 작년 연말 홀리데이 미 쇼핑 지출이 소비자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문 증가로 거의 9% 상승했다.
- 관련 조사 기관 Adobe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온라인 지출은 당초 예상했던 2천4백8억달러보다 8.7% 높은 2천4백14억달러를 기록했다. 그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9% 늘었다.
- 이번 홀리데이 기간은 다소 짧았지만, 대규모 할인을 통해 즉, 월마트나 타겟 등이 광고를 늘리고 조기 할인을 늘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즈니스로 할인을 이용해 '뚝주린' 소비자들을 공략했다.
- 조사 기관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의 54.5%가 스마트폰을 이용했다. 이는 지난 2023년 51.1%보다 증가한 것이다.

Reuters 기사

Bloomberg: US Trade Deficit Widens on Largest Jump in Imports Since 2022**11월 미 무역적자 확대... 수입 크게 확대**

- 미 기업들이 항만 파업과 트럼프 새 행정부의 관세 강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수입품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이 지난 2022년 이래 크게 뛰어 11월 무역적자가 늘어났다.
- 오늘 화요일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11월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적자가 전월에 비해 6.2% 늘어난 782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 규모는 전월에 비해 3.4% 늘어난 3천5백16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출은 2.7% 증가했다.
- 또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 제품, 자본 장비, 자동차 등에 수입이 특히 많았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s Cook Says Officials Can Be More Cautious With Rate Cuts**연준 이사 “금리 인하 신중하게 진행”**

- 연준 이사인 Lisa Cook은 견조한 노동시장과 계속되는 인플레이 압박 때문에 연준 관리들은 금리 인하에 보다 신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그는 미시간 앤아버에서 열린 정책 콘퍼런스에서 “지난해 9월 이래 노동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더 유연해졌으며, 인플레이는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고착됐다. 우리 연준은 추가 인하에 좀 더 신중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그는 중립 금리로 정책 금리를 이동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Stocks Fall and Yields Rise as Data Curb Fed Bets: Markets Wrap****국채 금리 상승에 주식 하락... 금리 인하 저해 지표 탕**

- 인플레이 압력 속에서 최근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연준이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식이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 오늘 화요일 오전에 미 서비스 활동과 주문이 성장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식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뀌었다. 국채 또한 하락했다. 국채는 특히 투자 적격 등급의 거래와 390억달러 규모의 미 10년물 국채 매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Bloomberg 기사

[물류]**Bloomberg: Shipping Rates Start 2025 With a Spike on Tariff, Strike Worries****올해 컨테이너 요금 급증... 관세와 파업 우려로**

- 미 수입업체들은 트럼프 새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미국 해상 무역 규모의 절반을 차지하는 항만 폐쇄를 위협하는 파업을 앞두고 재고를 늘리고 있다.
-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오는 현물 컨테이너 요금이 지난달에 급등했다.
- 관련 화물 데이터 플랫폼인 Xeneta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현재 아시아 발 미 서부 항만 도착 40피트 컨테이너 요금은 전달 4천4달러에서 6천달러로 상승했다. 아시아에서 동부 항만으로 오는 요금은 31% 늘어난 7천1백 달러다.
-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물동량 압박과 높은 현물 요금은 올해 1분기에 국한되고, 올해 하반기 수요는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인공지능]**WSJ: Nvidia CEO Pitches Robotics, Cars as Growth Areas to Consumer-Electronics Audience****엔비디아 CEO “성장 분야는 로봇틱스와 자동차”**

- 엔비디아 CEO Jensen Huang은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에서 자사의 AI 에이전트, 로봇틱스, 자율주행차 분야의 성과에 대해 연설했다.
- Jensen Huang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물리적 AI 도구 (physical AI tools)를 소개했다. 그는 물리적 AI 도구가 창고와 공장에 더 많은 자동화를 가져올 수 있고, 향후 20년 내 38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그는 엔비디아의 자동차 산업의 성과에 대해 말했다. 엔비디아는 도요타와 협력해 드라이버 보조 칩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엔비디아는 메르세데스와 볼보와도 파트너를 맺고 있다. 엔비디아의 올해 자동차 관련 수익은 약 40억 달러이며, 다음 회계연도에는 50억 달러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된다.

WSJ 기사

CNBC: Samsung Electronics banking on AI to outpace global growth in smartphones, home appliances 삼성전자, 글로벌 경쟁에서 AI 활용

- 삼성전자는 올해 소비자 전자제품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사 AI 비즈니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삼성전자가 소비자 전자제품 분야에서 약 3%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삼성전자는 자사 기기를 AI와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냉장고, 세탁기, 로봇청소기 등에 AI 칩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갤럭시 S24 시리즈와 같은 스마트폰 모델의 AI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 한편, 화웨이와 샤오미 같은 중국 브랜드가 낮은 가격을 무기로 삼성전자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 한종희 부회장은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은 삼성과 소비자에 도움이 된다. 삼성은 더 높은 보안성과 편리함을 통해 차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CNBC 기사

Bloomberg: Artificial Intelligence Energy Demand Is Driving Climate Tech Investing AI 에너지 수요가 기후 기술 투자 주도

-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후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산업에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 글로벌 에너지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 자금은 2024년 94억에 달했다. 2023년보다 12% 증가한 수치다.
- 하지만 2024년 전반적인 기후 기술 투자 규모는 감소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소 약속 포기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 글로벌 기후 기술 스타트업들에 대한 2024년 투자 금액은 2023년보다 14% 감소한 300억 달러였다.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후 기술 투자 1위를 차지했던 친환경 교통 관련 기업들은 배터리 제조업체 Northvolt의 파산과 같은 실패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 2024년 친환경 교통 관련 투자금은 2023년보다 33% 이상 감소한 77억 달러에 그쳤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These EV ‘Battery Belt’ Towns Are Betting Trump Won’t Ditch Them
전기차 ‘배터리 벨트’ 타운 “트럼프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

- 켄터키주 Elizabeth 타운 근처에는 두 개의 포드 모터 전기차 공장이 있다. 포드 모터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배터리 사업에 투자했다.
- 하지만 현재 수백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연방 지원금이 위험에 처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해당 지원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 자동차 연구 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에 따르면 Elizabeth 타운과 같은 전기차 공장과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가 약 1천3백3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며, 10만9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미국 남부와 중서부 배터리 공장에 많은 투자가 예상되었다. 조지아에서 미시간까지 이어지는 배터리 공장을 두고 “배터리 벨트”라는 별명도 붙었었다.
- 해당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를 약속했었다.
- CRU 그룹 배터리 소재 연구 책임자 Sam Adham은 해당 지원이 미국 내 배터리 제조 비용을 약 4천 달러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해당 지원금의 폐지를 공약해 관련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United Air to Offer Musk’s Starlink Wi-Fi in US Later This Year

유나이티드 항공, 스타링크 Wifi 서비스 제공 예정

- 유나이티드 항공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Wifi 서비스를 올봄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행 중에도 Wifi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당 Wifi 서비스는 유나이티드 항공의 마일리지플러스 회원들에게만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 유나이티드 항공과 스타링크의 계약은 9월에 처음 발표되었다. 유나이티드 항공 Embraer SA E175 항공기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유나이티드 항공 모든 2등급 지역 항공기에 스타링크 Wifi가 장착될 예정이다.
- 유나이티드 항공 외에도 미국 Hawaiian Holdings, 공공 전세 항공사 JSX가 스타링크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 외에는 카타르 항공과 Air Baltic, Air New Zealand, ZIPAIR 도쿄가 스타링크와 협약을 맺었었다.

Bloomberg 기사

FinanceYahoo: Uber Joins Forces With Nvidia to Boost AI Technology in Autonomous Vehicles

우버와 엔비디아 협력, 자율주행차 AI 강화

- 우버와 엔비디아가 협력해 자율주행차 AI 기술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버는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플랫폼과 DGX 클라우드를 사용해 자율주행차 파트너들이 더 강력한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버의 CEO Dara Khosrowshahi는 “생산형 AI가 자동차의 미래를 이끌 것이다. 이를 위해 풍부한 데이터와 강력한 컴퓨팅 능력이 필요하다. 칩 제조업체와의 협력이 안전하고 빠르게 자율주행 기술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Finance Yahoo 기사

[보고서]

미국 패싱?... "각국, '미국 없는 무역' 대비"

EU-메르코수르 FTA 합의...탈달러 움직임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보편 관세 공약의 현실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각국이 '미국 없는 무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록펠러 인터내셔널 회장이자 투자가인 루치르 샤프마는 6일(현지시간)자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에서 올해 10대 경제 트렌드를 짚으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올해 상황이 트럼프 당선인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세계는 단극 체제가 아니며 트럼프 당선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